

## 전기연, '개폐기 접점설계' 1차모델 완성

한전이 폴리머현수애자의 사용 확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 사안은 애자업계 판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애자업계 최대 관심사다.

한전은 현재 폴리머현수애자 사용범위 제한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평일산업의 민원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평일산업은 폴리머현수애자가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기존 자기현수애자보다 월등한 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특정 지역에서는 자기재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폴리머현수애자를 개발, 99년부터 한전에 독점 공급해 온 회사다.

한전은 99년 폴리머현수애자 개발 이후 현수애자를 기존 자기식에서 폴리머식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아래 2004년까지는 각각 50%씩 구매하고 2005년부터는 폴리머현수애자를 주력 구매할 방침이다. 또 두 사양에 대한 구매비를 조절을 위해 설치지역의 염진해 농도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 염진해 농도가 낮은 1개 지역은 자기식만, 나머지는 두 사양 모두 구매토록 하고 있다.

평일산업은 폴리머현수애자를 전지역에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반면 자기현수애자를 독점 공급해 온 고려애자는 개발 초기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며 한전의 기존 구매방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애자는 또한 폴리머현수애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전이 폴리머현수애자 연간단기업체를 선정할 때 이전의 납품실적을 중시함에 따라 폴리머현수애자를 독점 공급해 온 평일산업에만 유리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평일산업에 뒤이어 폴리머현수애자를 개발한 고려애자, 이엔아이, 대한전선 등은 내년 4월에 있을 폴리머현수애자 연간단기 입찰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절연재로 평일산업의 에필렌프로필렌고무(EPDM)보다 우수한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어 절연성능이 우수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폴리머현수애자가 자기식에 비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중장기 구매

계획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자재수급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선 연간단가 연이어 입찰

한전은 지난 1일 830억원 규모의 전선분야 연간단가 입찰을 실시한 이후 2일과 7일에도 총 800억원 규모의 전선 연간단가 입찰을 실시, 앞으로 1년간의 전선 연간단가 입찰을 거의 마무리했다. 한전은 10월 말까지 잔여 규격에 대한 단가입찰을 계속 실시하지만 지난 7일까지 전체 전선단가 규모 2천여억원 가운데 약 1천600억원이 입찰 완료된 것이다.

특히 총 740억원 규모인 ACSR/AW-OC(알루미늄피복강심알루미늄절연전선) 단가입찰이 2일 실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ACSR/AW-OC 입찰은 총 4개 규격별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60SQ 규격 입찰에서는 대한전선 LG전선 희성전선 진로산업 대륙전선 5개 업체가 단가업체로 선정돼 연간 발주 추정물량의 20%씩 균등 공급케 됐다. 이 규격의 연간 발주 추정물량은 1천587만9천129m이며, 금액으로는 약 380억원에 달한다.

또 95SQ 규격에서는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일전선 등 3개 업체가 단가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3사는 연간 발주추정수량(637만4천936m, 95억원 규모)의 50%, 30%, 20%를 각각 공급한다.

58SQ 규격에서는 대한전선 현대케이블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KTC 등 5개 업체가 단가업체로 선정돼 연간 발주추정수량(2천310만9천401m, 250억원 규모)의 20%씩 균등 공급한다.

또 적격심사방식으로 실시된 32SQ 규격은 넥상스코리아가 우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규격의 연간 발주추정수량은 138만9만775m로 총 1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7일에는 600V 전력케이블(CV) 9개 규격, 총 50억원 규모에 대한 입찰이 실시됐다.

입찰 결과 600V CV 38SQ는 한국전선, 600V CV 60SQ는 대신전선, 600V CV 100SQ는 서울전선, 600V CV 200SQ는 경안전선이 각각 우선 적격심사대상로 선정됐다.

또 최저가낙찰자로 입찰한 600V CV의 2C 38SQ, 2C 22SQ, 4C 22SQ, 4C 38SQ 등 4개 규격은 한국전선이, 600V CV 4C 60SQ는 대신전선이 각각 단가업체로 선정됐다.

## 전기학회 전력계통연구회, 유연송전시스템 워크숍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연구회(위원장 추진부)는 10일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전력품질 및 유연송전시스템(FACTS)분야 워킹그룹 발족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전력품질과 FACTS분야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전남 강진변전소에 설치된 종합조류제어기(UPFC: FACTS 중 가장 진보된 설비)의 운전전략과 설치, 시험에 관한 주제발표도 예정돼 있어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32W FPL램프용 안정기 설치시 정부 지원

늦어도 내년부터 길쭉한 U자 모양의 32W FPL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를 설치하는 건축주 등에게는 정부지원금(리베이트)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36W급 재래식 FPL램프보다 절전효율이 우수한 32W 제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해당 안정기를 대량 설치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력연구원은 이와 관련,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32W FPL램프의 기술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안정기를 리베이트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전력연구원은 이 같은 작업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방침이라 늦어도 내년부터 32W FPL램프용 안정기를 대형건물 등에 설치하는 소비자에겐 일정액의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력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절전형 제품인 32W FPL램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원금 수준은 32W 직관형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에 적용하던 1개당 2천800원(1등용), 4천210원(2등용)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연구원 사업지원팀 박병일 과장은 "32W FPL램프는 직관형 형광등과 비교해 절전효과에서 미묘한 차이가 난다"며 "안정기 1개당 일정액을 일괄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지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전체 에너지절감분에서 설치대수를 나눈 값만큼을 정부지원금으로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2W FPL램프는 전력절감률이 36W급보다 13.9% 향상됐으며 효율도 25% 개선됐다는 게 특징이

다. FPL램프는 또 독특한 모양 탓에 월평균 140만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일반 가정, 상가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력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전기연, 한중일 전기기술교류회 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력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KAL호텔에서 '한·중·일 전기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비롯해 중국전력연구원(CEPRI), 일본전력중앙연구소(CRIREPI) 등 3개 기관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며 전력기기진단기술과 전력전자기술에 관한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한전 우즈발전유한공사 공식 출범

중국내 10만kW급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인 한전 우즈(武陟)발전유한공사가 지난 7일 공식 출범했다.

한전 우즈발전유한공사 이사장인 윤맹현 대외사업본부장은 "자오쥘(焦作)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우즈열병합 발전사업을 통해 양측이 한 배를 탄 사업동반자로서 지혜와 역량을 결합해 공동 번영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즈열병합 발전사업은 총 건설비의 33%를 한전과 중국 측이 63대 37의 비율로 출자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이 사업을 통해 중국전력사업의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 전력센터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전 우즈발전유한공사는 현판식에 이어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현지 합자회사의 직제규정과 이사회 규정 등 6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시험원과 업무협약 체결

산업기술재단과 산업기술시험원장은 지난 14일 기술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기술재단과 산업기술시험원은 이번 협약체결로 소속 회원사를 위해 산업기술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동사업 발굴 등에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또 사업수행 과정에서 상호지원, 보유시설·자료에 대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환익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과 기술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술재단과 산업기술시험원은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